

생생한 禪 그대로 포착하는 선어록 길잡이

선어록

김호귀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8천원



우리는 '어록'이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대통령 어록' '히딩크 어록' '법륜 스님 어록' 등등. 보통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한 말을 두고두고 꺼내 보고 싶을 때 어록을 만든다. 촌철살인 같은 이 말들의 집합은 늘 사람들에게 지표가 된다. <선의 어록>도 역시 마찬가지다. 선사들의 언행을 기록한 선어록과 경전을 해설해 선(禪)의 이해를 돕는 책이다. 한국과 중국의 선어록, 선의 경전에 이르기까지 선과 관련한 거의 모든 선문헌들을 다룬 이 책은 어록을 남긴 선사의 생애와 법맥, 편찬 당시의 시대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선지식들의 활연한 깨침을 통해 감화시켜 준다. 또 선어록에 나타난 선법의 내용은 선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어록'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선종서적 제작자 등이 사가(師家)의 가르침을 필록한 책을 뜻했다. 저자 김호귀 교수(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선어록(禪語錄)은 선의 어록 또는 선종의 어록이라는 뜻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일반적인 선문헌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선종 개조인 달마부터 모든 선사들이 일상 담화를 통해 종지를 설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문자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학을 중시하는 교

종과는 달리 좌선 수행과 직관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은 이심전심(以心傳心)과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중지로 삼았다. 따라서 선사가 직접 제자를 펼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언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제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기록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어록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다. "마조의 선종에서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선이 없었기 때문에 선의 경지를 작용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시돼 일상 모든 측면서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 그대로 문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거나 편찬한 것이 선어록이었다. 따라서 선어록 자체가 선의 구체적 측면과 인격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상의 표명이기도 했다."

<선의 어록>에는 또한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이 상대를 꾸짖거나 각성시키는 장면도 종종 등장한다. 그 중에는 선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직하거나 영화나 문학 작품 속에 삽입된 장면들도 포함돼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예들은 이렇다. "인종 법사는 법성사서 <열반경>을 강의했다. 혜능 대사가 법성사 행랑채서 잠시 쉬던 참이었다. 밤이 되어 부는 바람에 깃발이 움직였다. 두 승이 논쟁하는 소리를 듣자 한 승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승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였다. 논쟁이 오갔지만 도리에는 맞지 않았다. 혜능은 곧장 바람과 깃발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실로 그대들의 마음뿐이라고 했다. 우연히 그 말을 엿듣게 된 인종은 깜짝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 다음날 혜능을 조실로 맞아들여 바람과 깃발의 뜻을 물었다. 혜능이 그 이치를 설명했다. 그러자 인종은

제자의 예를 취하여 선요를 청했다." 드라 마틱한 스토리다. 또 있다. "일찍이 승찬 대사는 대풍질(大風疾)에 걸렸는데 헤가 대사를 찾아가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불쑥 물었다. 저는 풍질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그대의 죄를 가져오면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다."라고.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탁월함에 탄성케 하는 이런 장면들은 읽는 재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그 뜻을 참구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선어록은 "범어

당사자 일대기와 법맥 등 설명 직관적인 선어록 이해 도와줘

선적 사이서 펼쳐진 명장면 소개

(法語) 및 수시로 행해지는 제자들과의 문답상량(問答商量) 등을 기록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성격이 강해 어록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록의 당사자에 대한 생애 이해가 아울러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이 책은 어록 당사자의 일대기와 편찬을 둘러싼 시대 상황, 후대에 평판을 붙인 배경 등에 대해 풍부한 설명을 더한다. 이는 또한 '어록이 어록으로서 충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어록 당사자에 대한 법맥(法脈)과 종파(宗派) 내지는 당시의 사회 여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저자가 의도한 것이다. 따라서 선어록에 대한 이런 설

명은 시대·법맥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목차와 더불어 선과 선문헌이 걸여온 역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또한 돕고 있다.

한 일화를 보면 <벽암록> 출현 이후 선승들은 너나없이 벽암록의 문자 공부에만 몰두해 선수행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대혜종고는 벽암록 판각과 책들을 모두 한 데 모아 소각해 버렸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문자로 전해지는 선사들의 어록을 참구하느라 선수행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선의 참된 실천이라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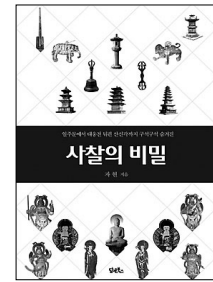
이 책을 읽다 보면 선어록에서 '송(頌)' '염(拈)' '시중(示衆)' 혹은 '수시(垂示)' '평창(評唱)' 등 일종의 주석과 같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전의 선문답에 대한 후대의 응답이자, 나아가 그러한 응답에 대한 응답이다. 선은 법맥을 따라 '염통되고 평창되며' 더욱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어느 한 조사가 말하는 선을 선이라고 믿기보다, 선사들의 말과 기록, 그것에 대한 평창이 긴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발전한 선의 풍성한 모습을 참조하는 편이 진정한 선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요즘의 '어록' 유행은 낯선 현상이 아닐 수 있다. 교학을 통하기보다 이심전심(以心傳心)과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통해 깨치기를 강조했던 선종 종지처럼, 오늘날의 사람들 또한 주장자를 내려치거나 호통을 칩으로써 지도하는 선지식들과 만나, 보다 생생하게 선을 경험하면서 진리를 되새기고픈 심리가 강해서 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생생한 선의 장면을 그대로 포착하는 선어록 이해를 돕는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 권에 담은 불교문화와 사찰 ... 150여 그림 입체적 이해 도와

사찰의 비밀

글 지현 | 담앤북스 펴냄 | 1만7천원



탑은 10층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로로는 반드시 홀수, 가로로는 반드시 짝수로 세운다. 3층, 5층, 9층, 13층 석탑은 있지만 4층, 6층, 8층은 없고, 옆면이 4각, 8각은 있지만 5각, 7각은 없다. 이처럼 사찰에 있는 이것저것을 자세히,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나 '눈썰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답사나 기도를 위해 절에 무시로 다녔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흔하다. 불보살을 모신 전각의 기둥은 모두 동글지만 스님이 속삭이는 요사채나 후원은 네모기둥으로 세운다는 건 보고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물마다 위계를 설정하기 위한 나름 계산된 의도다.

의미를 모르니 '뭉툰 스토리텔링'이 극성을 부리기도 한다. 지장보살이 가운데 자리잡으면 뜬금없이 등장하는 '개'는 신라 김교각 스님이 중국 갈 때 데려간 경북 경산의 삼살개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학자들은 '사자' 임이 분명하다고 '추정'한다. 또한 상원사 문수선원 앞에 놓여 있는 사자는 졸지에 고양이로 둔갑하기도 한다. 조선의 채색 전통 때문에 나한이 팔족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는 '애교'에 속하는 정도다.

그런데 이런 '왜?' 라는 궁금증은 사실 불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 땅에 자리잡은 '불교'는 이미 2,600년이라는 긴 세월 무게를 견뎌가 쌓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 자리잡은 무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책들은 대부분 불교 교리만 설명하거나 양식의 변화에만 치중해 설명해 왔다. 당연히 잘못된 내용을 반복해서 생산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르다. 인도서 출발한 불교를 씨줄로,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신선 사상이나 민속신앙 등을 날줄로 역사와 문화를 넘나들며 말없이 자리를 지켜온 사찰의 이것 저것에 대해 종합무진 설명한다. 때로는 인도 저 너머 그리스·로마 혹은 유교나 도교를 넘어 기독교와 이슬람까지 넘나들어야 할 때도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하마비나 일주문 시작해 각 전각은 물론 의식에 사용된 다양한 도구까지 사찰 곳곳에 숨겨진 '비밀'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설명에는 양식의 변천뿐 아니라 사찰의 변천까지 모두 동원했다. 이렇게 사찰 입구 하마비에서부터 산신각에 있는 염라대왕

까지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설명하는데 동원된 키워드는 모두 33개다. 모두 너무 흔하게 하는 질문들이지만 속 시원한 답변이 없었던 것들이다.

△절은 왜 산으로 갔을까? △탑의 층수는 왜 모두 홀수일까? △법당 부처님은 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일까? △전각이나 탑이 만들어진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각에 붙어 있는 주련은 무슨 뜻일까? △전각 안에는 왜 그리도 동물 조각과 그림이 많을까? △부처님 앞에는 왜 쌓이나 초를 올릴까? △삼신할미와 염라대왕은 왜 절에 계실까?

저자는 이런 질문을 통해 사찰 안에 깃든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불교를 신앙하는 이들에게는 더 깊은 믿음과 깨침을 주고 문화와 향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 깊은 역사와 이해를 준다.

이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산문이 열리고 이름이 생기자'라는 제목이 붙은 첫 장에서는 사찰이 들어선 연유와 이름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일부

하마비서 전각 이야기까지 망라

사찰 주제 '종합무진 크로스오버'

폐사의 과정까지 다룬다. 선종의 흥기와 조선의 승유역할 정적으로 인해 산으로 들어가야 했던 역사 그리고 그동안 잘 몰랐던 역사가나 능침사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사찰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라는 둘째 장에서는 하마비, 부도, 일주문, 석등, 탑 등 전각 앞에 가기까지 만나게 되는 여러 유물에 대해 소개한다. 애초 불교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석등은 조명 기능이 없는 장식품이었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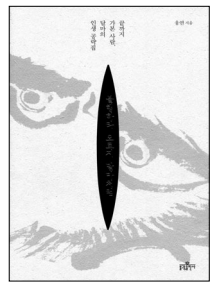
모든 장을 통틀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사찰에는 전각이나 불상, 탑이며 석등 하다못해 마당 한구석에 이름도 없이 서 있는 오래된 주춧돌이나 기와장까지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불교문화사'가 독자의 궁금증을 시원스레 해소해 주지 못한 데는 불교의 전개 양식의 변천 등에만 초점을 맞춰 '사찰'을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불교가 거쳐 온 모든 지역의 문화가 하나하나 우리의 '사찰'에 영향을 끼쳤음을 주목하며 그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 탐사한다. 특히 150여 장이 넘는 도판과 그림은 독자들의 '사찰'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돕고 있다.

김주일 기자

지금 삶이 불행하다면 '달마'를 만나라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웅연 지음 | 불광 펴냄 | 1만5천원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달마'를 모르는 이는 드물것 같다.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야 놀자' 등 영화 제목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홍화복을 상징하는 '달마도'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이웃나라 일본서도 우리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놀이를 할 때, '달마가 굴렀다'라고 외칠 만큼 달마는 대

중적으로 친숙한 인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달마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선종(禪宗)을 완성한 6조 혜능의 위광에 가리고 달마도 그림의 위세에 짓눌려, 달마의 삶과 말은 산산이 흩어졌다.

전설 속의 달마는 신비롭지만, 현실 속의 달마대사는 누구보다 쓸쓸했다. 참다운 자기다움을 지키려 애썼고, 혁명을 꿈꾼 죄로 죽어야 했다.

이 책은 인간으로서의 달마를 복원하며 달마의 실제적 진실을 잡아보려는 새로운 시도의 결과물이다. 한국 선불교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중국 선종을 창시한 초조 보리달마의 삶과 사상을 작금의 현실과 접목해 창조적으로 해석했다. 누구에게든 '살아있음'이란, 자신에게는 우주적이며 절대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살아도 살아도 허기진

삶, 욕망의 부속이자 체제의 파편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들이다. 달마 또한 1,500여 년 전 그 누구보다 고독하고 불행했던 사람이다. 달마는 삶에 대해 헛된 기대나 희망을 부여하지 않는다. 오직 무심(無心)으로 삶을 관통하며, 지금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실이자 완성임을 당당하게 펼쳐보인다. 치욕을 못 견디고 못남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완전체(完全體)'인 자신에 대해 확신만 있다면 그따위 불행쯤, 아무렇지 않게 그러려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이 쌓인다. 좌절과 울분, 자책과 낙담이 끼어들 틈이 없다. 오직 자족과 겸약이 있을 뿐이다.

지금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아직 달마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달마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난다.

김주일 기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고품질을 여겨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굵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사워타올

-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골까지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안타올

-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죽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관저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 값 15,000원

수세미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구 후 닦아줍니다.
- 값 6,000원

수세미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